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1월 13일 (제87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자기인생 살기

수능을 앞둔 수험생 아이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다. 나는 기도 후에 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대학이 인생의 전부야 아니다. 꼭 일류대학 나왔다고 성공할까? 아니란다.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학과를 택하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란다. 꼭 일류대학에 가야 하니까 점수에 맞춰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학과를 택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 또 대학을 못가면 어쩌니? 너희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하면 된단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대리인생을 살지 말고, 네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된단다. 그리고 들어간 것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너희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거다. 늘 말하지만 행운은 노력하는 자를 친구 삼거든.” 70여 평생을 살다보니 돈보다, 명예나 명성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행복이다. 그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이는 행복의 커트라인을 그어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불행하게 만든다. 가장 불행한 자는 만족함을 모르는 자 아닌가. 네잎클로버의 행운도 좋지만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이다.

또한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고, 일이 잘 되고 능률이 오른다. 그러다보면 성공도 자석처럼 끌려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주와 재능을 주셨다. 김연아가 노력만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아니다. 그 분야에 타고난 재질이 있었기에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호남선을 열심히 달린다고 부산에 갈 수 있겠는가. 자기 것을 찾아 남의 인생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 때 행복해진다.

수험생 모두가 공부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치르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의 동력(動力)은 신뢰에서 나온다

지난 8일, 총회장 목사님은 인천교회의 교역자,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을 급히 소집하였다. 이는 금주 총동원전도주일에 앞서 교회 직분자들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인천교회 소성전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입니다. 즉 리더(leader)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단체가, 교회가, 나라가 동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리더가 신뢰를 잃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이런 경우입니다. 신

입니다. 신뢰를 얻기란 힘들어도 잃는 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거수일투족에 심사숙고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많은 무리가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신뢰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인생을 살지 말고 바둑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장기를 두어보고, 바둑을 두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는 왕을 잡으면 이기는 게임이기에 왕을 지키는 많은 지킴이들을 얹어가는 게임이고, 바둑은 바둑판에 많은 집을 지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장기는 양쪽 병사들의 숫자가 줄어가지만, 바둑은 그 알

는 법입니다.

내가 단골인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전 주인은 맛도 좋고 푸짐하게 줘서 좋기는 했지만, 2%가 부족했습니다. 항상 비닐로 된 긴 앞치마를 입고 손님을 맞아서 좀 그랬습니다. 앞치마에서 늘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종업원들이 아주 산뜻하게 옷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는 겁니다. 맛도 좋고 푸짐하게 주는데다 서비스까지 좋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말도 하기 전에 미리미리 가져다줍니다. 그러니 그 가게는 언제나 손님이 바글바



인천교회 직분자 세미나(2016년 11월 8일, 인천예수중심교회 소성전)

뢰를 잃은 목사나 신뢰를 잃은 단체장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얻습니까? 언행일치의 삶을 살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한데 행동은 엉망이라던가, 입만 열면 뽕이나 치고 거짓말이나 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리더로서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한다면 누가 그 말에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을 해도 성도들이 안 들습니까? 장로가, 조장 구역장이 부탁해도 성도가 복지부동입니까? 그건 성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은 리더의 책임입니다. 동력의 근원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아름답기로 키우려면 몇 십 년, 몇 백 년 걸리지만 자르는 데는 한 순간

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윗은 바둑 인생을 살아 사무엘하 23장에 나열한 37명의 용사를 얻었던 반면, 장기 인생을 산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급을 타고, 대신 싸워준 다윗도 잃어버리고, 제사장 사무엘마저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자꾸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건 당신이 장기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꼴을 얻으려면 꼴통을 발로 차면 안 되지요. 꼴통을 살펴야지요. 연세가 많은 권천국 목사님은 왜 죽어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를 살립니까? 사랑으로 꼴통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감동을 시켜 사람이 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합니다. 관심은 살리고, 무관심은 죽이는 것 아닙니까? 자고로 양지에 움도 먼저 트고, 꽃도 먼저 피

글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분께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맛도 좋아야 하고, 서비스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하세요. 한 마디로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노래도 있잖습니까? ‘있을 때 잘해’ 라고 말입니다. 그날에 받을 확실한 상을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이번 총동원주일, 우선 안 믿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부터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모셔오세요. 이 전이 차고 넘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 농부가 단에 햇곡식을 올리듯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 ~ 12월 1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호텔예약 11월 22일(화) 오전 10:00, 홈페이지 예약(www.jcc.tv)
문의 02-533-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6:6~11)



게으른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모리아 산을 찾았습니다. 아곱 역시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창31:40).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음을 시인했고(왕상19:10), 엘리사도 부름을 받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던 중이었습니다(왕상19:19). 다윗 역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시119:148). 사도 바울의 사역도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살전2:9).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어찌 성경의 인물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고로 엉덩이가 가벼워야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살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자는 채 12시간도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부지런하게 사느냐, 게으름을 피우느냐입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의 독소다

저는 게으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핑계를 대는 겁니다.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해도 꼭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었으면 조용이나 있지, 대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찍 나왔는데 차가 막혀서’, ‘차가 고장이 나서’ 등등 말입니다. 하긴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각자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나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안 움직인 겁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마25:24~25). 그 주인이 이에 분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고 바깥 어둔 데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마25:30).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잠언 22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게으름의 정의를 ‘무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의 원래 뜻은 ‘돌보지 않는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이지 애플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체구도 자그마한 분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기시고 7남매를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는 일로 매일 분주하셨습니다. 농사일도 하시고, 또 틈틈이 나가 행상을 해서 가정경제에 보태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

머니가 왜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을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머니가 왜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을까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곧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역으로 게으름은 무책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을 부탁할 때 절대 한가하게 놓고 있는 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잘할 거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보니 ‘오늘 아니면 내일하지’ 해서 결국 시간 안에 못해옵니다. 대신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찾고, 연구해옵니다. 뿌리가 썩은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듯, 게으른 자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릴 때 배웠습니다. 여름 내내 놀던 베짖이가 겨울이 오자 개미에게 가서 빌어먹으려다 망신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게으른 대가를 받아야지요. 어떤 대가냐?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하게 되고(잠10: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잠10:26), 남의 부름을 당할 것이고(잠12:24),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잠

15:19), 구걸해도 얻지 못할 것이고(잠20:4), 패가망신 할 것이며(잠18:9), 굶주릴 것이고(잠19:15), 쇠퇴할 뿐더러(전10:18),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마25:26~30).

대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6~8).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운도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자와 동행한다는

것을요. 감나무 밑에서 입이나 벌리고 있는 자와 사다리를 가져

다 감나무에 오르는 자 중에 누가 감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까? 입으로 감이 안 떨어지면

운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데 무슨 행운이 따라옵니까? 행운이 눈멀었습니까?

여러분, 도둑놈 중에 최악은 인생을 도둑질하는 놈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 말입니다. 성경은 “때를 아끼라”(엡5:16)고 했는데, 매일 빈둥빈둥 놀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고, 심지어 차려놓은 밥상에서 수저 올리기도 귀찮아하는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고, 그런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혹시 직원 중에, 제자 중에 게으른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기 때문’(잠10:26)입니다. 게으른 자를 쓰면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단체가 잘 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고름은 절대 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업은 부지런한 자가 이룹니다. 느헤미

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일에 몰두하여 그들의 원수조차도 놀랄만한 기간 내에 일을 마쳤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

자본이 없습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고, 우리 때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전쟁 직후라 성한 것 하나 없는 데서 이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동력은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고,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번듯하게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잠10:4),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잠12:24), 마음의 풍족함을 얻고(잠13:4),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히6:11).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운동하세요. 목자는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세요. 주님은 ‘찾으면 찾고, 구하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들이 찾고, 얻고, 열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오. 나태해진 정신을 가다듬고 게으름을 떨쳐버리세요. 그런 자가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가 장애인인 아닙니다. 정신적인 장애인인 진짜 장애인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중에 제일 큰 장애인입니다. 게으름도 습관일진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습관 때문에 비참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신과 싸워 이겨내세요. ‘~ 때문에’라고 변명하지 말고, ‘게으른 나’와 싸워 이기세요. 그러면 행운도, 성공도 당신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요즘 세태를 풍자하여 ‘순실이에게 물어봐’ 라는 개그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잘 모르면 주위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공한 기업이나 사람은 주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멘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왕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어린 아들을 자기의 친구인 멘토에게 맡겼습니다. 멘토는 친구 아들을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훈육하고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다하여 오디세우스 왕이 없는 동안 훌륭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멘토는 신뢰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대, 지도자, 또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는 떠돌이 수도승인 라스푸틴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라스푸틴은 수도원을 떠돌면서 농민들의 병을 고쳐주다가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고쳐주면서 황실, 특히 황후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황제가 황궁의 일을 황후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나가자 라스푸틴이 황후를 조종하여 러시아 정부를 좌지우지함으로써 국정혼란이 계속되었고, 민심은 완전히 황실을 떠났습니다. 황제의 측근이 라스푸틴을 암살하였지만 민심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되었고, 러시아 공산혁명에 의해 로마노프 왕조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

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리라”(삼상16:45)고 선포하고 싸움으로써 골리앗을 상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이 후원하는 강력한 왕조를 건립하고 후대가 부러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멘토로 두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작금의 사태로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안다고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물을 만들고, 좋은 인물은 좋은 인생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무는 큰 나무 곁에 가면 죽지만 사람은 큰 인물 곁에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영멸이 영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시고, 인생의 지침이 되시며,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이 유가 되십니다. 그분께 물어보면 영·혼·육의 정답과 해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그분과 동행해야 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관섭 장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달 전 청년 자매가 와서 “전도사님 10월29일에 결혼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결혼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 인기 있는 결혼식이 뭔데?” 라고 물어보니 그 청년 하는 말이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라고 한다. 시댁 어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여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서 주례사 하실 때 예수 믿으라고 하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신랑과 시댁 쪽에서 싫어 하실까봐 그랬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이고 특별한 결혼식을 꿈꾼다. 그래서 최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결혼식은 식상한 예식장 식순이나 예배에서 벗어나 나만의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한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고 한다.

딱 2년 전 요맘때쯤 말로만 들었던 주례 없는 결혼식, 신랑 신부의 노래와 댄스,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 결혼식에 갔었던 기억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모습에 뭔가 씁쓸함을 느꼈던 결혼식이라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청년이 이런 결혼식을...

주례 없는 결혼식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본인의 결혼식을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경건한 서약과 주의 종의 훈

인선포,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받는 첫 번째 축복기도로 새 출발을 하며, 또한 결혼 주례사를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들이 인생의 지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혼식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단, 멋진 교단임에 틀림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이 청년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더니 깨달았는지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부모님과 마음고생 했던 것을 털어 놓았다.

그렇다 우리가 잠깐 한 눈을 팔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밀고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말씀하신다. 즉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니 세상의 흐름에 너를 내어주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의 풍조에 동요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인생의 지도는 내 마음에 있다.
지혜롭게 길을 찾아라.
참새가 동물원 봉황의 우아함을 보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마음대로 날 수가 없고
꼬리 관리와 치장에 시간만 다 보내고 무거운 꼬리 웃으며 아름답게 펴야 박수 받고
예쁜 깃털 손질에 치렁대는 옷 걸치고 견고, 우아하게 고상하게 품을 잡아야 인기 있지만
그 몸은 동물원 철망 속 갇혔네, 간악한 무리에 둘러싸였네.
아~아 탄식 소리뿐!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고, 먹고 싶어도 맘대로 못 먹고
잠 한번 재밌대로 못 자며 노래와 춤인들 꿈이나 꾸겠나.

빛 좋은 개살구!
나무, 꽃만도 못해 외식하며 살아가다 털 빠지고 꼬리가 추해지니
때가 다 됐다며 무대에서 내려오라네.
고기값도 못 받고 떼기처분 되는 것 왜 물랐던고!

참새는 마음껏 친구와 얘기하며 노래와 춤과 여행을 자유롭게 즐기다
세상 떠날 때도 날개 치며 포장마차 팔려나가
낭만객들 친구 되어 불티나게 사랑받고
노랫소리 웃음소리 함께 하며 그들과 결혼에 골인했단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참새가 봉황의 심정 알겠나?
큰소리 친 자매! 봉황이 참새 즐거움 알겠나?
되묻고 싶다.

우리 욕심내지 말자.
욕심은 불행의 씨앗이다.

2016년 11월 4일 朋友

욕심은 불행의 씨앗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악인의 형통함

나의 돈은 너무 정직해, 우스갯소리로 제
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투기, 주식, 하다
못해 복권당첨 같은 것도 없이 그저 성실
하게 일하고 애쓴 만큼의 돈, 그것이 저의
전부이지요. 가끔 뉴스나 주변에서 불의
한 방법으로 쉽게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
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알
지 못할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
던 시편기자의 마음이 심분 이해가 되지
요. 악한 자의 삶에는 보통 사람들이 당
하는 고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
득은 마음으로 소원한 것보다 많고 재물
은 나날이 불어나며 항상 평안하고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습니다. 반면 늘 정결
하고 무죄하게 살려고 힘쓰는 시편기자
의 삶은 매일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재난
을 당하는 듯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이 실로 헛되게 느껴졌다고 시편 73편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
을 부러워말라고 하십니다. 형통함을 바
라보는 기준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은
악인의 삶이 하나님 눈에는 형통이 아니
라 저주고 파멸이지요. 도리어 요셉이 노
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없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에 지난한 삶이 아
니라 형통한 삶이었던 것이지요.
재물이 많은 것, 백이 있는 것, 권력이 높
은 것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의 삶에 함께 계신 것이 형통함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본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악인
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좌절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이 힘
들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 우리에게
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양가사를 마음
속으로 읊미해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돌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굴은 비바람 모질
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
여 천국 보이고...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
명 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환웃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를 때에 영광스런 면류관을 받아쓰겠네.**
지금 나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는지, 아니
면 본향을 향해 가는지 생각해봅니다. 악
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던 시편기자는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깨닫지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엄청난 재력가인 권사님 한분이 고아원
에 봉사할 갔다가 유난히 못생기고 장애
를 가진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
겨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권사님께서 그 소녀를 입양
하기 전에는 그 가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
었고,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습
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
라 부잣집의 딸이 되었기에 그 가정의 모
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부

모님의 재산까지 상속 받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녀가 권사님을 따라
가기 싫다고 울면서 때를 쓰고 권사님의
청을 거절했다면, 고아의 신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
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
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
사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
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
음의 문을 열고 겸허히 예수님을 받아들
여야 합니다.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
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
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
님께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
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며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
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님
sanghwapyung@hanmail.net

:: Global Study ::

✂ 나쁜 말은 독약이요 살인이다
말에는 상대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Bad words are like poison and murder. It takes responsibility.
坏话是毒药, 是谋杀, 话语有说的对象, 并且伴随着责任。

✂ 칼에는 두 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 입에는 만 개의 날이 있다

There are two blades in a knife,
but thousands of blades in our mouths.
刀有两刃, 但是人口有一万个刃。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건강한 발 관리법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무
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발은
몸의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제대로 대접
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발이 인체의 건강
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안다면
몸의 어느 부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게 될 것이다.
발의 첫 번째 역할은 몸무게를 받쳐주는
것이다. 발은 인체의 대들보인 척추와 연
결되어 몸무게를 받쳐주고 무게를 흡수
하여 분산시켜 주는 완충기능을 한다. 발
바닥의 아치를 이루는 뼈 하나하나는 작
지만 궁형으로 배열되어 상당한 체중을
견딜 수 있다.
발의 두 번째 역할은 걷는 기능이다. 인
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것이다. 두 발로 걸음으로써 두 손이 자

유롭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
다. 또한 발은 제2의 심장으로서의 기능
을 갖고 있다. 혈액은 심장에서 아래로 순
환되며 발에서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
진다. 심장은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발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펌프 작용을 원
활히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
동을 통해 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발을 관리하는 기본 지식을 알아보
자. 첫째 깨끗함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발에는 우리 몸
의 어느 부분보다 세균이 많다. 둘째, 맨
발보다는 양말이 좋다. 사람마다 다르지
만 발에는 땀이 많이 난다. 이 땀은 세균
의 온상이 되고 발 냄새의 원인이 된다.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소재의 양말을
신어야 한다. 셋째, 부드러운 신발을 약간
넉넉하게 신어야 한다. 발에 일어나는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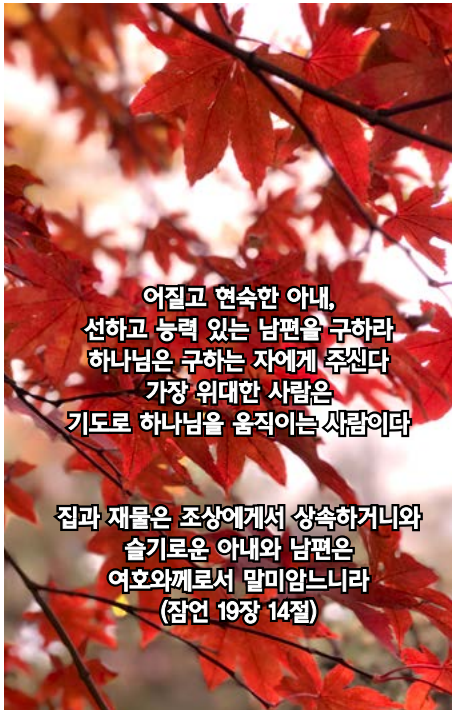
의 많은 부분은 신발에 원인이 있다. 여성
들의 하이힐은 체중을 앞으로 쏠리게 하
여 요통과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된다. 넷
째, 일주일에 2번 발 마사지가 좋다. 몸무
게가 68kg인 사람이 한 발을 내딛을 때
몸무게의 25%를 더한 85kg이 발에 전해
진다. 이 사람이 하루 2km를 걸으면 170
톤을 이동시킨 셈이다. 이런 중노동을 한
발에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발에 마
사지를 해주면 발은 더 많은 건강을 가
져다 줄 것이다. 발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달아 발 관리를 잘하여 건강한 삶을 유
지하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
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전 12:26).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두 천사가 여행 중 어느 부잣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었는데 좋
은 객실이 있음에도 차가운 지하실 방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잠자
리에 드는데 늙은 천사가 벽에 난 구멍
을 발견하고 막아주는 것을 보고 영문을
몰라 하는 젊은 천사에게 그저 웃어넘기
드립니다.

이튿날엔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을 찾았
는데 자신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과
가장 좋은 이부자리까지 내어주어 편히
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부부가 울
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가난한 농부에
겐 암소 한 마리가 있어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팔아 힘든 생활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멀쩡했던 암소가 죽어버렸으니
그 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에게 “어떻게 이
런 일이 일어나게 놔둔 것입니까? 우리
를 천대한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도와주고, 우리를 환대한 가
난한 부부의 한 마리뿐인 소는 죽게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항의를 하자 비
로소 늙은 천사가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부잣집 지하실 벽에 난 구멍에 금덩어
리가 보여 찾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
였고, 어젯밤 가난한 농부의 집에 죽음
의 천사가 아내를 데리러 왔길래 농부의
아내는 살려주고 암소를 데려가라고 부
탁했지.”
그렇습니다. ‘너의 눈이 말하는 것을 그
대로 믿지 말라’는 말처럼 볼 수 있는 것
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큰 슬픔의 거센 강물
이 밀려와 내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
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빼앗
아간다고 해도, 또한 행운의 여신이 나를
찾아와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그저 행복
하기만 한 날에도 ‘선후론 판단은 금물!’
입니다. 왜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돌보심
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
다”(전3:11).



어질고 현숙한 아내,
선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와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